

# 2003 동경 하수도전을 다녀와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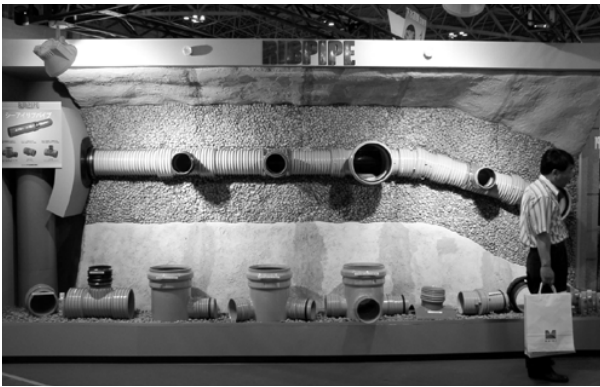


글 \_\_\_ 문오년 (주)뉴보텍 부장

템 개발 등에 신기술이 돋보였던 전시회였다. 그 중 당사 업종과 관련하여 국내에서는 볼 수 없었던 자원재활용과 친환경적인 시설 및 그 기술, 그리고 흠관, 레진관, 강관, 세라믹관 등 다양한 종류의 배관제와 부속류가 전시되어 있어 세계의 배관제 추이와 국내 개발 가능성 등을 타진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 특히, 도시내 비굴착보수공법 및 추진공법과 진공식 하수도시설공법, 그리고 우수침투시설, 저류시설 등 선진 기술력을 몸소 체득함으로써 선진국의 하수처리시설에 대한 현황을 간략하게나마 엿볼 수 있었다.

### 한 발 앞선 하수 배관제

전시장은 크게 2개의 전시장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하나는 배관제 및 부속류를 포함한 시공법 등 하수도의 직접적인 부분과 또 하나는 하수처리장 및 침입수, 유입수를 컨트롤하는 시스템 관련 부분이다. 배관제로 출품된 것은 PVC관, PE관, 주철관, 흠관, 황토관 등 국내에서 접할 수 있는 제품 외 세라믹관 등 신개념의 하수 배관제를 선보이고 있었는데, 일본의 지진 때문인지 관의 길이가 대체로 짧았으며 건축물의 내진공법처럼 접속부분을 지진에 대비해 유기적으로 움직일 수 있게 한 방법이 전반적으로 고려되고 있었다. 하수관의 강도 보완, 다양한 부속품 개발에 의한 접합문제의 다각적인 해결안 제시, 그리고 경제성과 시공성을 고려한 제품 개발 등 국내 하수배관제 생산 업체들이 고심하던 부분들에 대해 이미 다차원적인 해결 방안을 제시해 놓았고, 특히 흠관 맨홀 연결시 맨홀 연결부위에 사모래 같은 물질을 붙여 접속이 용이하게 한 세심한 배려는 일본인들의 장인정신을 엿볼 수 있는 부분이었다. PVC관의 장점인 사출화를 통해 부품의 다양화 및 호환성 등 시공성을 극대화한 점은 PVC관이 소형관 시장에서 절대 우위에 있음을 짐작케 하였다. 특히 Aron사에 생산되는 수백 가지의 부속 제품들을 보았을 때, 동종 업체로서 무한한 개발 가능성의 의지를 갖게 하기에 충분했다. PVC관 시공시 처짐을 방지하기 위해 관 내부에 쇠막대기 등의 받침을 설치한 후 시공하도록 한 점, 그리고 우수/흠통 겸용받이 및 우수저류시설의 개발은 PVC 관련 시장의 무궁한 가능성을 깨닫게 해 주



### 세계적인 종합 하수 박람회

2003년 7월 22일부터 7월 25일까지 4일간 개최된 2003 동경 하수도전은 총 394개의 업체가 참여하였고, 1,439개의 부스로 구성된 세계적인 하수도 박람회였다. 일본 하수도협회의 주최로 개최된 이번 하수도전은 주로 하수도사업 시행자인 전국 지방공공단체와 관련 업체들을 대상으로 하수도에 대한 설계·계량, 건설, 관로·기자재, 하수처리, 유지관리, 배수설비, 계측 등의 폭넓은 분야의 최신 기술 및 정보 등을 전시·소개하는 자리였다. 이번 전시회에 출품한 기기류들은 최신 기술로써 아직 상용화되지 않은 것들이 많았고, 특히 관 추진공법, 모니터링 기술, 원격 감시제어, 슬러지 재이용, 환경과 IT 기술을 접목한 하수처리시설의 종합유지관리 정보시스



년 호우시 사후처리에 급급한 우리 나라의 현실에 비추어 볼 때, 이러한 시설의 개발 및 보급이 시급한 것으로 판단된다.

### 이해관계자들의 근본적인 인식전환

전시회장은 아주 깔끔하고 각 파트별로 주제가 담겨진 부스를 설치함으로써 이제 태동 단계에 있는 국내 전시회와는 달리 전시회의 홍보효과를 극대화시키고 있었다. 어느 정도 성숙기에 접어든 하수관거 분야 보다는 선진 기술을 바탕으로 한 기계설비 등 시스템 위주의 전시였으며, 품질을 보완한 새로운 소재의 하수관 보다는 효율적인 하수처리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업체들이 다양한 연결관(부속

었다.

국내에서는 대부분이 빗물받이와 홈통받이를 따로 쓰고 있는데 반해 빗물, 홈통받이를 함께 쓰도록 함으로써 공간성과 시공성을 강조하였고, 낙엽 등 슬러지를 걸러내는 거름막 같은 장치로 쓰레기가 맨홀로 들어가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였다. 우수의 지하수 유출방지 시설, 지반 침하방지 시설에 부가하여 우수저류시설을 설치하여 가정에서 세차나 화단에 물을 주는데 사용하는 등 경제적 이득과 집중호우 등의 범람에 대비할 수 있는 시설의 이용은 하수처리장의 처리능력 최대화를 효과적으로 꾀하고 있었다. 국내에서는 아직 이러한 시설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며, 현재 환경이 무엇보다 중요시 되고 매

류) 위주의 제품 개발에 치중하고 있음을 엿볼 수 있었다. 차세대 상하수도 정책이나 기준을 리드해 나갈 것으로 사료되는 일본 하수도 협회의 막강한 권위나 정책적 입김을 상기시켜 주기에 충분한 전시회였으며, 지자체·업체와 협회간의 유기적인 업무공조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근본적인 인식전환이 요구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우리 나라 제조업체의 규격화된 품질 제정과 더불어 하수관거 시설이 국가 차원의 중요한 사회 간접자본 시설이라는 인식하에 관련 업체 모두 책임감을 가지고 제품 개발 및 보급에 힘써줄 것을 당부하는 바이다. ☺

## 『2003 WATER KOREA』 세미나 및 신기술 발표회 안내 4 2003 하반기 하수도 연찬회

2003 WATER KOREA 행사기간 동안 하반기 상수도 연찬회를 개최합니다. 이번 하수도 연찬회에서는 하수도 관련 정책소개, 하수도 설치운영 우수 사례 및 업무 개선 방안에 대한 폭넓은 주제 발표와 토론을 통해 관련 정보의 교류의 장으로 운영될 것입니다. 관심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1. 날짜 : 2003년 11월 12일 (수) 10 : 00~17 : 00
2. 장소 : BEXCO 컨벤션홀 206호
3. 참가대상 : 지자체 하수도 업무 담당자 및 하수처리시설 종사자  
유역(지방) 환경청 하수도 업무 담당자
4. 문의처 : 환경관리공단 032-560-2357

교육  
훈련

정보

행사

시험

[www.kwwa.or.kr](http://www.kwwa.or.kr)

물은 생명 그리고 미래입니다